

보도 일시	배포 즉시				
배포 일시	2026. 8. 26. (수) 08:00				
담당 부서	교류홍보팀	책임자	팀 장	한동수	(031-324-0770)
	교류홍보팀	담당자	주 임	최보윤	(031-324-0775)

농업 유산과 한식을 연계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한다 - 한식과 K-농업을 연계한 국내외 전시 및 홍보 교류 협력 착수 -

- 국립농업박물관(관장 오경태)과 한식진흥원(이사장 이규민)은 8월 25일 북촌 한식문화공간 이음에서 농업과 한국 식문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내외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(MOU)을 체결했다.
- 이번 협약은 농업·농경 문화유산과 한식을 융합해 세계적 트렌드로 발전하고 있는 K-푸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, 실질적인 시너지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.
- 국립농업박물관의 농업·유산 기반시설과 한식진흥원의 식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특별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.
- 국립농업박물관과 한식진흥원은 한국 농업 유산의 가치를 계승하고 이를 한식문화와 연계한 차세대 콘텐츠로 발굴·홍보한다.
-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▲한국 농업 유산 및 식문화 관련 국내외 전시·홍보 교류 ▲농업·농촌 및 한식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·보존·아카이브 구축·활용에 관한 협력 ▲농업·농촌과 한식문화를 연계한 콘텐츠 개발 ▲농업·식문화 통합 체험 및 미래 세대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.

- 국립농업박물관 오경태 관장은 “농업 유산과 한식은 떼어 수 없는 상생의 관계” 라며 “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관람객과 미래 세대가 한국 농업과 식문화를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는 복합 융합 콘텐츠를 선보이겠다” 라고 말했다.

- 한식진흥원 이규민 이사장은 “한국 농업의 역사와 생태를 상징하는 국립농업박물관과의 협력은 한식의 근원적 가치를 대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” 이라며 “단순한 교류를 넘어 글로벌 트렌드로서 한식의 발전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” 라고 밝혔다.



[사진설명] 한식진흥원 이규민 이사장(좌측)과 국립농업박물관 오경태 관장(우측)이 MOU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.



[사진] 한식진흥원-국립농업박물관 상호 협력 위한 MOU 체결